아트앤스터디 <오페라에 중독되다>

③ 19세기 전반: 벨칸토의 시대

1) 시대 개요: 낭만적(romantic)이라는 단어는 '로맨스(Romance)'에서 왔다. 중세 음유시인들이 노래한 기사들의 모험담을 뜻하는 말이다. 18세기 말까지 이 단어는 느슨한 의미로 쓰였지만, 괴테, 쉴러 등의 독일 작가들은 이 단어를 새롭게 규정하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지었다. 그러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 연도로 정확한 경계를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상당부분 공존했으며, 한 사람의 예술가가 고전주의에 속하는 동시에 낭만주의 예술가로 평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작곡가 중에서는 베토벤과 슈베르트 같은 작곡가들이 그에 해당한다.

낭만주의자들은 감정을 이성보다 우위에 두며 고전주의자들과 대립했다. 이들은 고전주의가 추구한 조화와 절제 대신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신적인 것으로 숭배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이런 주장은 후원 세력이 귀족계급에서 부르주아 시민계급으로 옮겨간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작곡가들은 더 이상 귀족의 하인이 아닌 프리랜서로 삶을 꾸렸고, 시대의 대변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패배하면서 유럽 귀족계급은 다시 구제도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지만 프랑스대혁명이 불러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았다. 그래서 19세기 전반에는 유럽 전역에서 지역적 봉기가 끊이지 않았다.

고전주의자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숭배한 것처럼 낭만주의자들은 중세를 예찬했다. 이러한 중세 취향은 예술 전반에 나타난다. 건축에서는 고딕 양식이 부활한 듯한 새로운 양식이 유행했고, 월터 스콧의 역사소설이 인기를 끌었다. 낭만주의의 특징은 기괴하고 환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따른 자연에 대한 향수, 광기와 천재성을 선호하는 태도 등이다.

오페라의 낭만주의 시대는 베토벤의 <피델리오Fidelio>,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마탄의 사수> 등으로 출발해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의 벨칸토 오페라로 절정에 이르렀다.

2) '벨칸토(bel canto)': 아름다운(bel) 노래(canto)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아름다운 가창법'이라는 의미로, 대체로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이탈리아 오페라에 쓰였던 화려하고 기교적인 창법을 뜻한다.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 같은 작곡가들의 작품이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작들이다. 거친 소리를 내지 않는 잘 다듬어진 서정적 가창이 핵심이지만, 그저 우아하고 서정적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악가가 발휘할 수 있는 극한의 기교를 총동원해 노래 부르는 것으로 때로는 인간의 목소리로 악기들의 기교와 겨루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유연한 레가토(legato)가 벨칸토 창법의 관건인데, 많은 이탈리아 가수들이 이 레가토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음계를 빠르게 오르내리며 가수는 그 음들 사이를 명료하고 매끄럽게 연결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레가토다. 그러나 이탈리아 가수들 가운데는

음의 오르내림을 느슨하고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이 레가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벨칸토 가수들은 악보에 적혀있는 대로 노래하지는 않는다. 기교를 발휘할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벨칸토'라는 말은 17세기 중엽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의 단순하고 서정적인 창법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로시, 카리시미 같은 작곡가가 제창한 것으로, 그 당시까지 유행하던 가사 중심의 '스틸레 라 프레젠타티보'에 대한 반동으로, 선율을 중시한 창법이다.
벨리니, 도니체티, 로시니의 거의 잊혀졌던 벨칸토 오페라들을 역사 속에 부활시킨 칼라스는 '목소리를 악기처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제어하는 기법'이라고 벨칸토의 정의를 내렸다. 조운 서덜랜드, 에디타 그루베로바, 체칠리아 바르톨리 등이 탁월한 기교로 칼라스의 뒤를 이어 벨칸토 레퍼터리들을 노래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극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오페라 소재 및 작곡법이 차츰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벨칸토 창법은 쇠퇴하고, 무게감과 큰 성량을 요구하는 창법이 벨칸토를 대신하게 되었다.

3) 벨칸토 가수의 조건 : 로시니는 1858년 벨칸토 오페라 가수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a) 전체 성역에 걸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닐 것
b) 노력 없이도 화려한 기교를 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을 것
c) 이탈리아 명가수의 노래를 듣고 거기서 배워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창법을 몸에 익힐 것

1. 벨칸토 희극 - 로시니의 '잔인한 웃음'

1) 희극의 본질: 시정(correction). 지나친 탐욕으로 사회규범을 벗어난 개인을 비웃어주고 벌하는 것이 희극의 본질. 희극 오페라는 낭패를 겪고 웃음거리가 되는 주인공을 언제나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희극 오페라의 웃음은 '잔인한 웃음'이다.

2) 벨칸토 희극의 대표 작곡가 로시니: 조아키노 로시니(Gioacchino Rossini, 1792-1868)는 호른과 트럼펫 주자였던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우고 볼로냐 음악 학교에서 작곡 공부를 시작했다. 18세부터 오페라 작곡을 의뢰 받았고, 30대 후반에 오페라 작곡을 그만둘 때까지 총 39편의 오페라를 발표했다. 해마다 평균 두 편을 쓰는 속필이었던 셈이다. 고전주의 형식을 따른 마지막 오페라 작곡가이면서 풍자희극에 강했지만 오페라 세리아나 규모가 큰 작품도 만들었다. <세비야의 이발사>, <신데렐라>를 비롯한 그의 여러 걸작들은 '희극을 위한 천재성'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3)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

작곡 : 조아키노 로시니(Gioacchino Rossini, 1792-1868)
원작 : 피에르 오귀스탱 카롱 드 보마르쉐(1732-1799)의 <피가로 3부작>(1775)
대본 : 체자레 스테르비니
초연 : 1816년 2월 20일 로마, 테아트로 디 토레 아르젠티나 극장
배경 : 18세기 스페인 세비야

<주요 등장인물>
로지나(Rosina. 메조소프라노) : 후견인 바르톨로의 집에 사는 젊은 처녀
알마비바(Almaviva. 테너) : 로지나와 결혼하려는 젊은 백작
피가로(Figaro. 바리톤) : 세비야의 소문난 이발사
돈 바르톨로(Don Bartolo. 바리톤) : 로지나의 늙은 후견인. 의학박사
돈 바실리오(Don Basilio. 베이스) : 로지나의 음악 교사(베이스)
* 추천 DVD : 조이스 디도나토/후안 디에고 플로레스/피에트로 스파뇰리 등, 안토니오 파파노 지휘, 런던 코벤트가든 로열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2008년(한글자막)

2. 벨칸토 비극 - 도니체티와 벨리니의 실성하는 여주인공

1) 가에타노 도니체티(Gaetano Donizetti, 1797-1848)
도니체티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어린 시절부터 완벽하고 철저한 음악교육을 받았다. 원래는 관현악과 실내악, 칸타타와 교회음악에 헌신할 작정이었으나, 자신의 초기 오페라 작품에 유명 흥행사가 관심을 보이자 오페라 작곡에 전념하게 된다. 1830년에 밀라노에서 초연된 <안나 볼레나>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그는 <사랑의 묘약>,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람메르모르의 루치아>의 연속적인 성공으로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지나친 검열에 염증을 느끼고 아내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이탈리아를 떠난 그는 파리로 가서 <린다 디 샤모니>, <돈 파스콸레> 등의 오페라로 다시금 성공을 누렸으나 신경쇠약 등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2) 도니체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Lucia di Lammermoor>

작곡 : 가에타노 도니체티(Gaetano Donizetti, 1797-1848)
대본 : 살바토레 카마라노(Salvatore Cammarano), 이탈리아어
원작 : 월터 스콧(Walter Scott,1771-1832)<래머무어의 신부The Bride of Lammermoor>
초연 : 1835년 9월 26일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배경 : 17세기 후반 스코틀랜드

<주요 등장인물>
루치아(Lucia. 소프라노) : 람메르모르 영주의 여동생
에드가르도(Edgardo. 테너) : 레이븐즈우드 성의 주인
엔리코(Enrico. 바리톤) : 람메르모르의 영주
라이몬도(Raimondo. 베이스) : 성직자. 루치아의 가정교사
노르마노(Normanno. 테너) : 엔리코의 심복 가신
아르투로(Arturo. 테너) : 루치아의 약혼자
알리사(Alisa. 메조소프라노 또는 알토) : 루치아의 시녀
* 추천 DVD : 존 서덜랜드, 알프레도 크라우스, 파블로 엘비라 등, 리처드 보닝 지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브루스 도넬 연출, 1982년 공연 실황(한글자막)

3) 빈첸초 벨리니(Vincenzo Bellini, 1801-1835)
시칠리아 지방에서 태어난 벨리니는 나폴리 음악원에서 하이든, 모차르트, 페르골레시의 음악을 배우며 작곡가로 성장했다. 1924년 로시니의 오페라 <세미라미데>를 보고 결정적으로 오페라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의 오페라는 초기부터 관객과 제작자 모두를 만족시켜 이미 젊은 나이에 벨리니는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 작품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해적>을 작곡할 때 만난 대본가 펠리체 로마니와 함께 <몽유병 여인>, <노르마> 등의 히트작들을 발표했으나, 파리로 이주한 뒤 마지막 오페라 <청교도>를 발표하고 34세로 병사했다.

4)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Norma>

작곡 : 빈첸초 벨리니(Vincenzo Bellini, 1801-1835)
대본 : 펠리체 로마니(Felice Romani)
원작 : 알렉상드르 수메/루이 벨몬테의 비극 <노르마Norma>
초연 : 1831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배경 : BC 50년경 로마의 지배를 받는 갈리아(Gaul) 지방

<주요 등장인물>
노르마(Norma. 소프라노) : 드루이드의 여사제장
폴리오네(Pollione. 테너) : 갈리아에 파견된 로마 총독
아달지사(Adalgisa. 메조소프라노) : 드루이드의 젊은 여사제
오로베소(Oroveso. 베이스) : 드루이드 인들의 지도자. 노르마의 아버지

플라비오(Flavio. 테너) : 로마의 장군. 폴리오네의 친구
클로틸데(Clotilde. 메조소프라노) : 노르마의 시녀
* 추천 DVD : 에디타 그루베로바, 조란 토도로비치, 소니아 가나시 등, 프리드리히 하이더 지휘, 뮌헨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위르겐 로제 연출, 2006년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 실황(한글자막)

또 하나의 장르: 희극과 비극의 요소가 혼합된 멜로드라마
예: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L'elisir d'amore>

작곡 : 가에타노 도니체티(Gaetano Donizetti, 1797-1848)
원작 : 외젠 스크리브의 오페라 대본 <미약Le Philtre>(오베르 작곡)
대본 : 펠리체 로마니
초연 : 1832년 5월 12일 밀라노 카노비아나 극장
배경 : 19세기 초, 바스크 농촌 마을

<주요 등장인물>
네모리노(Nemorino. 테너) : 순진한 농촌 젊은이
아디나(Adina. 소프라노) : 지주의 딸
벨코레(Belcore. 바리톤) : 이 마을에 주둔한 군 하급장교
둘카마라 박사(Dulcamara. 베이스) : 돌팔이 약장수
자네타(Gianetta. 소프라노) : 마을 처녀

* 추천 DVD : 안나 네트렙코, 롤란도 비야손, 레오 누치 등, 알프레트 에쉬베 지휘, 빈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오토 셍크 연출, 2005년 빈 국립오페라극장 실황(한글자막)

(음악평론가 이용숙 rosina@chol.com)